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5차 공동 여론조사

지방의 선택! 희망2007

"이명박 BBK 연루 돼도 계속 지지" 66.8%

"김경준 신뢰" 38% 對 "李후보 신뢰" 25%

■BBK 李후보 연루 의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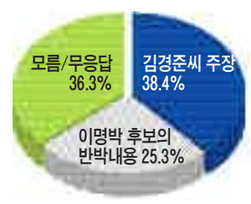
◇누구 말을 더 신뢰하나=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BBK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'이명박 후보 연루' 주장에 대해 38.4%는 '김씨 주장을 신뢰한다', 25.3%는 '이 후보의 반박 내용을 신뢰한다'고 응답, 이 후보가 연루돼 있을 것이라고 믿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'김씨 주장'을 신뢰하는 유권자는 광주(55.9%)와 전북(53.1%), 전남(52.5%), 대전(46.8%) 등에서, '이 후보 반박'을 신뢰하는 유권자는 부산(32.7%), 대구(31.6%), 충북(30.9%), 서울(30.3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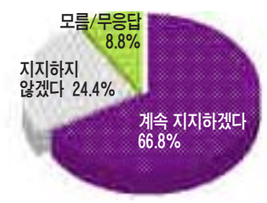
◇이명박 후보 연루설 사실로 밝혀지면='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후보의 연루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'라는 질문에 66.8%가 '계속 지지하겠다'고 응답해 제4차 조사 때보다 오히려 3.6%포인트 상승했다. 반면 24.4%는 '지지하지 않겠다'고 응답했다. 이명박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(80.3%)·강원(70.1%)·충북(68.7%)에서 높았으며, 충남(42.3%)·전남(40.8%)·전북(39.0%)에서는 지지철회 응답이 많았다.

◇이명박 후보 지지철회시 지지할 후보=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때 지지후보를 변경하겠다는 이 후보 지지층 중 45.4%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. 이어 정동영 후보 23.3%, 이인제 후보 5.3%, 문국현 후보 4.9%, 권영길 후보 4.5% 등의 순이었다. '이회창'이라는 응답은 경북(74.0%)·대구(65.8%)·울산(59.9%)에서, '정동영'은 전남(81.9%)·전북(63.6%)·광주(62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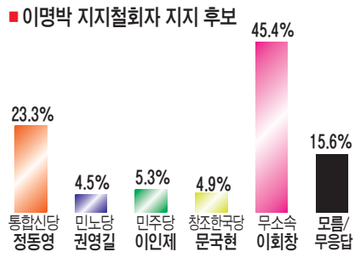
■김경준 VS 이명박 중 신뢰하는 주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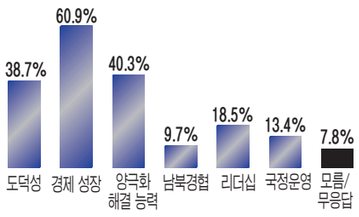
■이명박 후보 BBK 연루 시 지지 변경 의향



■이명박 지지철회자 지지 후보



■대통령 후보 평가 기준



"이명박 후보 가장 신뢰" 23.5%

■신뢰 후보·후보 평가 기준

◇가장 신뢰할만한 후보=이명박 후보가 23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회창 후보 20.5%, 문국현 후보 13.8%, 정동영 후보 12.8% 등으로 후보간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. 권영길 후보는 5.6%, 이인제 후보는 1.9%를 얻었다.

◇대통령 후보 평가 기준='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음 중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십니까(복수 응답)'라는 질문에 '국민경제 전반 성장 능력'이라는 응답이 60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민생경기 활성화 및 양극화 해결 능력' 40.3%, '공인으로서의 도덕성' 38.7% 등이 뒤를 이었다.

'정치적 리더십'은 18.5%, '국정 운영 및 행정능력' 13.4%, '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추진 능력' 9.7%, '인간적인 매력' 5.1% 순이었다.

후보의 도덕성이나 리더십, 국정 운영 능력 보다는 경제 성장을 더 잘 이끌 후보가 누구인지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"반드시 투표" 75% "안 할것" 9.6%

■투표 의향·후보 변경 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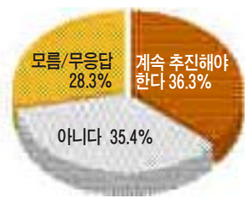
오는 12월 19일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, '반드시 투표하겠다'는 응답이 75.3%로 나타났으며, '아마도 투표할 것이다' 14.4%, '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' 7.7%, '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' 1.9%순이었다.

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변경할 의향을 물은 결과, '계속 지지할 것'이라는 응답이 54.0%로 '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' 38.9%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/정후식기자 who@kwangju.co.kr
/채희종기자 chae@kwangju.co.kr

■이회창 후보 대선 완주에 대한 견해

■범여권 단일화 지속 추진에 대한 견해



"단일화 계속 추진" 36.3% "반대" 35.4%

■범여 단일화 추진·후보 적합도

범여권이 대선후보 등록 이후에도 단일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를 묻는 질문에, '계속 추진해야 한다'는 의견(36.3%)과 '아니다'는 의견(35.4%)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. 모름·무응답은 28.3%였다.

'계속 추진해야 한다'는 응답은 광주·전라 출신자(52.6%), 대통합 민주신당(66.9%)·민주당(57.5%) 지지자, 정동영(65.8%) 및 문국현(45.4%) 지지자, 진보적 정치성향자(45.9%)에서 높았으며, '아니다'는 응답은 대전·충청 출신자(39.2%), 한나라당 지지자(41.6%), 보수적 정치성향자(41.7%)에서 많았다.

범여권 단일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층 가운데 55.1%는 바람직한 단일 후보로 정동영 후보를 꼽아 가장 많았다. 문국현 후보는 21.5%, 이인제 후보는 7.8%를 각각 얻었다.

"昌 백의종군해야" 52.5%

■昌 대선 완주에 대한 견해

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'더 나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고 백의종군해야 한다'는 의견이 52.5%로 '끝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' 31.5%에 비해 우세했다.

광주와 전남에서도 '백의종군해야 한다'는 응답이 각각 53.9%, 47.0%로 '완주해야 한다'(25.9%, 28.4%)는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다.

광주·전남 신당 27% 1위

■정당·국정수행 지지도

한나라당이 49.8%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지난 8월 60.3%, 10월 53.0%, 11월7일 51.5%와 비교할 때 하락세가 지속됐다.

대통합민주신당은 11.3%로 제4차 조사 때 보다 3.6%포인트 상승했다. 이어 민주노동당 4.3%, 민주당 3.2%, 창조한국당 2.4%, 국민중심당 0.6% 순으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소폭 상승했다. 특히 무응답층이 28.3%에 달해 아직도 부동층이 그만큼 많음을 반영했다.

광주·전남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26.5%로 수위를 달렸고, 민주당은 17.7%로 2위를 지켰다.

이어 한나라당은 12.6%, 민주노동당 5.9%, 창조한국당 5.0%, 국민중심당 0.7% 순으로 나타났다.

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'잘 하고 있다'는 긍정적 응답(매우 잘하고 있다 2.0%,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29.1%)이 31.1%로 제4차 조사 때 보다 1.9%포인트 떨어지는 등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'잘못하고 있다'는 부정적 응답(잘못하는 편이다 44.7%, 매우 잘못하고 있다 18.9%)은 63.6% 였다.

전국 16개 시·도서 3,400명 표본 추출

■여론조사 어떻게 했나

한국지방신문협회 '제5차 대선 공동 여론조사'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(Research & Research : 대표 노규형)에 의뢰해 대선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실시됐다.

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천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. 전국 16개 시·도별로 200~300명씩 할당해 표본을 추출한 뒤 그 결과에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다.

각 시·도에서의 성별·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은 통계청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(외국인 제외)를 근거로 삼았다.

조사에는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이 사용됐다.

전체 조사의 최대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1.7%포인트다. 서울과 경기는 ±5.7%포인트, 광주와 전남 등 나머지 14개 시·도는 ±6.9%포인트다.

17대 대선 공동 취재 네트워크를 구성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는 광주일보와 부산일보, 매일신문, 강원일보, 경남신문, 경인일보, 대전일보, 전북일보, 제주일보 등 9개 전국 유력 지방지다.